

사도행전

제16장

빌립보교회 개척

(행 16:1)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행 16:2)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 받는 자니
(행 16:3)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앎이러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앎이러라
(본문 제3절)

목상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 그를 제자(弟子)로 삼았다.
과 디모데의 어머니는 매우 경건(敬虔)한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
주석 인이었다.

(딤후 1:4)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딤후 1:5)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p>디모데를 선교여행(宣敎旅行)에 동참(同參)케 하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割禮)를 행하였다. 바울은 왜 디모데에게 할례(割禮)를 행하였을까?</p> <p style="text-align: center;">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본문 제3절)</p> <p>디모데에게 할례(割禮)를 행한 까닭은 아시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포용(包容)하여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다. 바울은 그만큼 열정적(熱情的)으로 아시아 지역의 복음 사역을 진행하고 있었다.</p>
	<p>(행 16:4) 여러 성으로 다녀 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성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행 16:5)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p>
<p>목상 과 주석</p>	<p style="text-align: center;">여러 성으로 다녀 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성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본문 제4절)</p> <p>『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성한 규례』는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결정된 사항(事項)들 곧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라는 규례(規例)였다(행 15:29).</p> <p style="text-align: center;">예루살렘 종교회의 (사도행전 제15장)</p>

예루살렘 종교회의는 바울 선교사역의 큰 분수령(分水嶺)이었다.

(행 15:1)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행 15:2)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중의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행 15:5)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행 15:6)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행 15:7) 많은 변론이 있는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행 15:8)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행 15:9)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라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행 15:10)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행 15:11)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행 15:13) 말을 마치매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행 15:28)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행 15:29)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p style="text-align: center;">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들어가니라 (본문 제5절)</p> <p>『이에』 즉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선교한 결과』 바울의 아시아 지역 복음 사역은 크게 부흥(復興)되었다.</p>
	<p>(행 16:6)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행 16:7)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p>
<p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목상 과 주석</p>	<p style="text-align: center;">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본문 제6절)</p> <p style="text-align: center;">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본문 제7절)</p> <p>그렇게 교회가 부흥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뜻밖에도, 성령(聖靈)께서는 바울의 아시아 지역 선교를 막으셨다.</p> <p>이렇게 성령(聖靈)께서 막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아시아 선교(宣敎)를 포기하려 하지 않았다.</p> <p>『브루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비두니아』, 『드로아』 등의 도시들은 모두 아시아 지역의 지명(地名)들이다.</p> <p style="text-align: center;">* 첨부(添附)된 『지도』를 참고하라.</p>

(행 16:8)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행 16:9)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목상 과 주석	<p>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본문 제9절)</p> <p>마침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幻像)을 보여주시자 바울 일행은 격렬한 논쟁(論爭) 끝에 그 환상(幻像)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認定)하고 아시아를 떠나 마게도냐로 향하게 된다.</p>
------------------------	---

(행 16:10)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목상 과 주석	<p>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본문 제10절)</p> <p>* 『인정함이러라(συμβιβάζω 섬비바조, 격렬한 논쟁 끝에 설득당하다,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다)』</p> <p>아마도 사도 바울의 환상(幻像)에 관하여 바울과 그의 동역자(同役者)들 사이에는 매우 심각한 논쟁(論爭)이 있었던 것 같다. 이 논쟁(論爭) 끝에 그들은 드디어 아시아 선교(宣敎)를 향한 그들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順服)하여 유럽으로 그들의 행선지(行先地)를 바꾸게 된다.</p>
------------------------	--

	<p>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시아를 버리신 것인가?</p> <p style="text-align: center;">결코 그렇지 않다.</p> <p>하나님께서서는 아시아에 베드로와 같은 다른 사역자(使役者)들을 파송(派送)하여 복음(福音)을 전하셨다.</p> <p>(벧전 1:1)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p> <p>(벧전 1:2)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p>
	<p>(행 16:11)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압볼리로 가고</p> <p>(행 16:12)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p>
<p>목상 과 주석</p>	<p style="text-align: center;">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압볼리로 가고 (본문 제11절)</p> <p>(행 20:6)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p> <p>하나님께서서는 사도 바울 일행이 최대한 시간(時間)을 단축(短縮)하여 마게도냐에 도착하도록 역사하셨다. 당시에 드로아에서 마게도냐까지의 항해(航海) 길은 통상 『5일(닷새)』이 걸렸다.</p>

그러나 사도 바울 일행은 『이틀 만에』 드로아에 도달하였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바람의 방향과 속도를 조절하여 일정(日程)을 단축(短縮) 하신 듯하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본문 제12절)

(본문 제12절, 새번역)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 으뜸가는 도시요, 로마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동안 묵었는데, / ㉡ 또는 ‘첫째 도시’

사도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처음으로 방문한 도시는 『빌립보』였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城)』 곧 『으뜸가는』 도시였고 『작은 로마(little Rome)』라고 불리우는 로마의 직할(直轄) 식민지였다.

사도 바울은 매우 『전략적으로』 선교지역을 선택하였다. 바울은 『복음의 영향력이 극대화 되도록』 각 지역의 거점도시(據點都市)를 택하여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였다.

『빌립보』 사람들은 자신들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큰 자랑으로 여기던 사람들이었다.

(행 16:21)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행 16:37)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p>* 『빌립보』 라는 도시(都市)의 특성(特性)에 대하여는 『빌립보 서 개요』 의 설명을 참고하라.</p>
	<p>(행 16:13)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p>
<p>목상 과 주석</p>	<p style="text-align: center;">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본문 제13절)</p> <p>바울이 안식일에 기도처(祈禱處)를 찾았다는 것은 빌립보에 유대인의 회당(synagogue)이 없었다는 뜻이다. 이방 지역에서 선교할 때에 바울은 언제나 유대인의 회당(會堂)을 먼저 찾았다.</p> <p>(행 17:1)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행 17:2)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세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행 17:3)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p> <p>(행 18:1)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행 18:2)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행 18:3)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행 18:4)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p>

	<p>빌립보 지역에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 일행은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물론 이방인(異邦人)들의 박해(迫害)는 있었지만</p> <p style="text-align: center;">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본문 제13절)</p> <p>(빌 4:3)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p> <p>빌립보교회는 여자(女子)들이 주도하여 개척(開拓)한 교회이다. 빌립보교회의 여자(女子) 성도들은 헌신적(獻身的)으로 교회를 섬겼다. 반면 그들 사이에는 다툼도 있었다.</p> <p>(빌 4:2)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게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p>
	<p>(행 16:14)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p> <p>(행 16:15)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p>
<p>목상 과 주석</p>	<p style="text-align: center;">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본문 제14절)</p>

	<p>빌립보에서 기도처(祈禱處)를 찾다가 바울 일행은 두아디라에서 온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p> <p>두아디라는 아시아 지역이다. 그렇게도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바울은 빌립보에서 아시아 여인을 만나 교회(教會)를 개척(開拓)하였다. 『루디아』는 당시에는 사치품으로 여겨졌던 자주색 옷감 장사로서 상당한 재력(財力)을 가진 무역상(貿易商)이었던 것 같다. 『루디아』를 만나도록 계획하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攝理)이다.</p>
	<p>(행 16:16)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p> <p>(행 16:17)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p> <p>(행 16:18)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p>
<p>목상 과 주석</p>	<p style="text-align: center;">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鬼神)이 즉시 나오니라 (본문 제18절)</p> <p>그 후 점(占)치는 여종(女從)의 귀신(鬼神)을 쫓아낸 후 바울 일행은 수없이 매를 맞고 깊은 옥(獄)에 갇힌다.</p> <p style="text-align: center;">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본문 제18절)</p> <p>바울은 귀신의 증거 받기를 원치 않았다. 오히려 괴로워하였다.</p>

예수께서도 귀신(鬼神)의 증거(證據) 받기를 원치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단호하게 귀신을 책망하시며 쫓아내셨다.

(막 1:23)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막 1:24)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막 1:25)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막 1:26)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오늘날 『귀신에게 증거를 받는 것』과 같은 비복음적(非福音的)인 방식으로,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부흥(復興)을 꾀하려는 것은 비성경적(非聖經的)이며 어리석은 짓이다. 일시적으로 부흥(復興)처럼 보이는 현상이 생겨날 수는 있으나 그것은 진정한 부흥(復興)이 아니다. 한국교회가 깊이 반성하고 회개할 일이다.

(마 7:20)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고후 11:14)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고후 11:15)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행 16:19)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여 갔다가

(행 16:20)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행 16:21)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

한다 하거늘	
목상 과 주석	<p style="text-align: center;">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본문 제21절)</p> <p>빌립보 사람들은 비록 빌립보에 살고 있지만 『로마 사람』이라는 특권의식(特權意識)을 가지고 『로마 사람』으로 행세하였다.</p> <p style="text-align: center;">* 이에 대하여는 『빌립보서 개요』의 설명을 참고하라.</p>
	<p>(행 16:22)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p> <p>(행 16:23)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p> <p>(행 16:24)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꼬에 든든히 채웠더니</p>
목상 과 주석	<p style="text-align: center;">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본문 제22절)</p>
	<p style="text-align: center;">많이 친 후에 (본문 제23절)</p>
	<p style="text-align: center;">깊은 옥에 가두고 (본문 제24절)</p>
	<p style="text-align: center;">그 발을 차꼬에 든든히 채웠더니 (본문 제24절)</p>

(본문 제33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찢어 주고

얼마나 심하게 매를 맞았던가? 『빌립보』는 바울이 자발적(自發的)으로 온 곳이 아니었다. 그렇게도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아시아 지역을 뒤로 하고 성령께서 강권(強勸)하여 인도하신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마땅히 순적(順適)한 복음의 길을 열어주셔야 하지 않겠는가?

빌립보에 도착하여 처음 루디아를 만나 잠시 길이 열리는 듯 하더니 바울 일행은 곧 혹독한 고난과 시련에 직면(直面)하게 되었다.

사중고난(四重苦難)

이것이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이다.

바울 일행은 『깊은 감옥』에서 『깊은 절망』에 빠졌을 것이다. 억울하고, 당황하며, 분노하고, 원망했을 것이다. 온 몸이 찢겨 피투성이가 된 몸, 견딜 수 없는 회한(悔恨)과 통증(痛症)에 시달리면서 그들은 깊은 『영혼의 밤』을 맞이했을 것이다.

깊은 옥

(본문 제24절)

한밤중에

(본문 제25절)

영혼의 깊은 감옥, 그리고 절망! 시간적으로뿐 아니라 바울과 실라의 영적(靈的), 심리적(心理的) 상태도 『한밤중』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왜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福音) 때문이다.

십자가의 복음은 무엇인가?

죄 없으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온 몸이 찢겨 보혈(寶血)의 피를 흘리신 사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영혼의 깊은 감옥(監獄)과 절망(絶望)』 속에서 바울은 그들이 걸어가야 할 복음(福音)의 길이 고난(苦難)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목상하게 되었을 것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고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자고 요청하시는 예수! 우리에게 고난(苦難)을 요청하시는 예수!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비록 그 길이 가시밭 길이라 할지라도, 비록 그 길이 우리의 목숨을 바쳐야 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진정 그 길이 구원의 길이라면, 진정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면, 우리 주님이 그 길에 함께 하신다면, 마땅히 우리의 생명을 바쳐야 하지 않겠는가? 마땅히 우리의 전부를 드려야 하지 않겠는가? 마땅히 우리 목숨을 바칠 각오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예수 그리스도!

진정 그 분이 우리의 구세주요 주인(主人)이라면, 진정 그 분이 우리의 생명이라면, 우리의 전(全) 존재를 드려 불태울만한 가치(價値)가 있지 않겠는가?

고난의 가치

드디어 바울은 고난(苦難)의 가치(價値)를 발견하고 이렇게 고백(告白)한다.

	<p>(롬 8:17)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p> <p>(갈 6:17) 이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p> <p>고난(苦難)의 가치(價値)를 발견한 사람들, 그 『고난의 한 복판』에서 터쳐나오는 영혼(靈魂)의 부르짖음, 이것이 진정한 『기도』와 『찬송』이다.</p>
<p>(행 16:25)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p>	
<p>목상 과 주석</p>	<p style="text-align: center;">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본문 제25절)</p> <p>깊은 감옥(監獄), 『영혼의 깊은 감옥과 절망』 속에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목상하며 주께서 주신 복음의 사명을 깨닫게 되자 바울과 실라의 심령(心靈) 속에는 영혼(靈魂) 깊숙이 터쳐나오는 탄식과 같은 『기도』, 북바쳐 오르는 『찬송』이 있었을 것이다. 다윗도 이 같이 터쳐나오는 『기도』와 『찬송』을 고백한 적이 있다.</p> <p>(시 40:1)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p> <p>(시 40:2)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p> <p>(시 40:3)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p>

	<p>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다윗을 끌어올리신 하나님, 그의 발을 반석(磐石) 위에 두사 그 걸음을 견고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며 『새 노래』로 하나님을 송축했을 때 사람들은 모두 다윗의 찬송(讚頌)을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죄수들이 듣더라 (본문 제25절)</p> <p>지금 빌립보 감옥의 죄수(罪囚)들이 이같은 경험을 하고 있었다. 바울과 실라의 영혼을 울리는 『기도』와 『찬송』을 『보고』 그들은 전율(戰慄)하며, 숨을 죽이고, 그 찬송을 듣고 있었다.</p> <p>감옥(監獄) 터가 흔들리고 그들의 매인 것이 모두 풀어졌지만 그들은 아무도 감히 도망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바울의 『기도』와 『찬송』을 『보고』, 『두려워하여』 떨고 있었다.</p> <p>(본문 제26절)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p> <p>(본문 제28절)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p>
	<p>(행 16:26)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p> <p>(행 16:27)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p>
<p>목상 과 주석</p>	<p style="text-align: center;">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본문 제27절)</p>

	<p>간수는 왜 자결(自決)하려 하였을까? 아마도 그 감옥에 정치적으로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수감(收監)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p>
	<p>(행 16:28)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행 16:29)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행 16:30)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행 16:31)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행 16:32)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p>
<p>목 상 과 주 석</p>	<p style="text-align: center;">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본문 제31절)</p> <p>이것은 하나님의 약속(約束)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約束)을 굳건히 붙잡고 불신(不信) 가족을 위해 간구해야 한다.</p>
	<p>(행 16:33)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 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행 16:34)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 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p>
	<p style="text-align: center;">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본문 제34절)</p>

<p>목상 과 주석</p>	<p style="text-align: center;">이 절망의 감옥에서</p> <p>하나님께서서는 기적적으로 간수(看守) 가족에게 복음(福音)을 전하도록 간섭하셨다.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member)는 루디아를 비롯한 많은 여인(女人)들, 귀신들렸던 여종(女從),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었다.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모두 협력(合力)하여 아름다운 빌립보의 교회공동체(教會共同體)를 이루었다.</p> <p>교회는 특정 부류(部類)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협력(合力)하여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共同體)이다.</p>
	<p>(행 16:35)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행 16:36)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행 16:37)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 대 (행 16:38)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행 16:39)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행 16:40)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p>
<p>목상 과 주석</p>	<p style="text-align: center;">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본문 제37절)</p>

(본문 제38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진작에 로마 사람이라는 신분을 밝혀 그 고초(苦草)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바울은 복음(福音)을 위한 고난(苦難)을 기꺼이 감수하였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 일행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개척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진다. 전도자의 사명은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주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 눈물의 길만이 복음 전도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이 생명 드리리이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이 목숨 바치리이다

(19/7/2012 새벽에 주신 말씀)

(고후 5: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후 5:18)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고후 5:19)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지도(바울의 선교여행)

